

종합·해설

광주·전남 현역 물갈이 타깃되나

■ 민주 이변주 호남 공천심사 관전포인트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 등 공천심사가 이변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2차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컷-오프에서 탈락하지 않아 '개혁 공천 실종'의 후폭풍으로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공천 심사 관전 포인트를 조명해본다.

◇현역 의원 물갈이=일단 전망이 어둡다고 있다. 우선, 1~2차 공천심사에서처럼 현역 국회의원의 컷-오프는 최소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에 대한 예외적 공천 기준이 없고 점수제로 공천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 경선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탈락은 2~3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1~2차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결과적으로 호남이 떠안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정치적 뒷받침 호남 지역에서조차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민 경선에 진출한다면 민주통합당이 내세웠던 '개혁 공천'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4~5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은 '호남 대학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천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차 대결 국민경선은=민주통합당은 양자 대결을 원칙으로 국민 경선을 치른다. 하지만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3차 구도의 국민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의 2차 공천 심사 결과, 20개 경선 지역구 가운데 6곳에서 3차 경선이 실시된다. 광주·전남에서도 5~6개 지역구에

현역의원 물갈이 폭

1·2차 심사 현역 탈락 없어

최소 4~5명 공천배제 관측

3차 국민 경선구도

5~6곳 2·3위 후보 초접전

2곳 이상 지역 대결 펼쳐질 듯

서 현역 국회의원과 복수의 예비 후보들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2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3차 대결 구도의 국민 경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3차 구도가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3차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차 대결 구도가 현실화할 경우, 일부 예비 후보들은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 국민 경선 이전에 단일화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여성 전략공천 및 아권연대는=여성 전략공천 문제는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1~2차 공천 심사에서 여성의 전략공천은 없었다. 공천 심사를 통해 단수 후보로 확정되거나 국민 경선에 참여시켰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공천에서 여성 예비후보가 전략공천되기 보다는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형태로 정리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예비 후보를 일반적으로 전략공천 한다면 경쟁 예비 후보들은 물론 민심의 반발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권연대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아권연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아권연대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아권연대 및 여성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공천 발표를 미루면서 추후 논의해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1 총선 현장

김동철, 광고협 지지 받아

박현, 인터넷 포털 통해 정책 제시

민주통합당 김동철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 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이하 광고협)가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밝힌 지지 명단에는 광주 시내버스조합·개인택시 및 민택시조합·화물자동차조합·자동차검사장비조합·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등 회원 5만명이 포함됐다.



무소속 박 현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싸이월드 등 각자 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국가 비전과 지역개발정책 비전 등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앞으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청년 대학생들의 의견을 사이버채널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무당파 유권자들과 소통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납품단가 현실화 찬성

민주통합당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의 핵심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있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배 "육영재단 국가 헌납해야"

무소속 김종배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정수장학회의 영납원, 육영재단을 사회환원이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주인은 이사회라며 본인도 무관하다고 하지만, 인제대 박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지난 1995년부터 10년 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재정개혁 추진위 필요"

민주통합당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재정력 지수(0.562)가 서울(1.011)과 경기(0.979) 등 15개 시도 평균(0.603)에도 못 미친다"며 "지방재정의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칭)국회지방재정개혁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특히 "부족한 재원은 국비지원 또는 지방채·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빚만 늘게 하는 꼴"이라며 "수도권 재정력 지수가 높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재벌들 유동법 소송 취하하라"

민주통합당 최경환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는 26일 "재벌 유동법체들은 유동상업발전법 개정안과 전주시회의의 재벌유동법체 의무유일제 시행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당장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최 후보는 "이번 헌법소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말살하려는 행위나 다름 없다"며 "이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명시한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한 항거이자, 재벌유동법체들에 대한 규제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갑길, '광산 100인 정책단' 운영

민주통합당 전갑길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학교수·시민단체·노동계·대학생·청년·주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광산 100인 정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단은 그간 내놓은 공약을 제정검토하고 광산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을 위해 '특히 정책단에서 검토할 3개의 정책(외국인투자 전용지역 추가조성·공공 및 광주공항 이전개발·영유아 24시간 돌봄센터 건립 등)은 광산발전의 획기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진 "초등 저학년 돌봄센터 설치"

민주통합당 장하진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26일 초등학생 저학년 전담 '어린이 돌봄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나홀로 어린이가 30% 정도"라며 "맛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거나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 돌봄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박은철·김광진 청년비례 최종후보로 민주 16명 압축

민주통합당 청년대표국회의원 최종경선 참가자 16명이 추려졌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출신 합격자는 2명이다. 청년대표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6일 청년정치캠프 프랄롱 등 심사를 통해 4분위별(25세 29세 남·여, 30세~35세 남·여)로 4명씩 모두 16명을 선출했다.

이중 광주·전남지역 합격자는 김광진(31)·박은철(34)씨 등 모두 2명. 이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해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시민통합당 전남도당 대변인과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고향인 순천에서 청년실업문제와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김씨는 "이번에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민주통합당 4·11총선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최종후보자 16명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아래줄 왼쪽부터 박연주, 이여진, 성나경, 김영웅, 이승연, 정은혜, 박인영, 권인혜, 장하나. 뒷줄 왼쪽부터 성치훈, 정상근, 심규진, 박은철(광주), 박지용, 김광진(순천), 안상현 후보.

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전남대 의정부를 지낸 박씨는 반값

등록금 실현·국립대 법인화 반대·국립대 기성회비 국가지원 문제 등 교육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민주당 특위는 다음달 7일까

지 청년선거인단을 모집해 9일~11일 투표를 실시,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최종 선출한다.

/이종행기자 golee@

Advertisement for 'National/Local/Industrial Hanmun Certificate'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with details on application,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Advertisement for 'Hanja/Hanwen Instructor Qualification' (漢字·漢文指導師資格) with details on application,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Women's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Leaders' (농성동 리더스하이) real estate project, including floor plan, price list, and contact information.